



KASI: 풍경이 있는 천체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사진에 관심을 갖고 찍기 시작하셨나요?

권오철: 처음 천체사진을 시작한 게 1992년입니다. 천체사진 하면 딥스카이를 주로 이야기 하던 시절이지요. 물론 저도 좀 찍었습니다만, 과학적인 기록 사진이라는 측면에서 아마추어천문가의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NASA의 허블망원경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망원경이나 망원렌즈가 아니라 광각렌즈가 필요했습니다. 별과 풍경과 시간이 등장하는 사진이죠. 당시에는 '오철류'의 사진이라고 불리는 등 비주류였습니다. 요즘 동아리(서울대아마추어천문회) 후배들 보니 '오철류'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더군요. 심지어 일주사진으로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으니깐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KASI: 개인전도 몇 번 하셨죠?

권오철: 사진이라는 게 남에게 보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전시는 사진이 소통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웹으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모니터를 통해 보는 것과 제대로 인화한 사진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전시회에서 사진인화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 개인전은 무료로 대관하고 오

프닝을 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품제작에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쓰게 됩니다. 1996년에 첫 번째 전시를 했고, 2007년에 11년 만에 전시를 했습니다. 개인전 이외에도 기획전이나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서울포토페어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세 번째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ASI: 올해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전시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밤(TWAN, The World at Night) 한국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오철: TWAN(The World at Night)은 오대양 육대주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별, 행성 및 천문현상이 어우러진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29명의 천체사진가들이 맑고 깨끗한 밤하늘을 찾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TWAN은 2009 세계 천문의 해 공식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만을 위한 일회성 프로젝트는 아니며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TWAN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YA2009 한국조직위

원회의 주관으로 전국 순회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이미 3월과 4월에 전시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IYA2009 공식 사이트인 아야진(www.astronomy2009.kr)에 공지될 것입니다.

KASI : 일주사진은 멋진 풍경이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풍경을 찾기 위해 남다른 노력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오철 : 특별히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다녀 봐야지요. 제 경우는 우리나라 국도는 안 지나가 본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제 방에는 지도와 지리 관련된 책만 서가 한 칸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져서 참 편리합니다. 나무나 탐, 마애불 등을 촬영하기 위해 전국의 유적과 당산나무들을 찾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풍채 좋은 나무들은 제가 다 만나봤지요. 그런데 천체사진을 찍으려면 대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나무를 예로 들면 계곡에 있어서 하늘이 트여있지 않거나 마을 입구에 있어서 광해가 있고 전깃줄이 화면에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탁 트인 동산 위에 올라앉은 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낮에 한번 가서 보고 밤에 다시 가서 봐야 합니다.

KASI : 일주 사진을 보면 노출 시간이 꽤 깁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시나요?

권오철 :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시간이 길어도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작업은 촬영시간이 12시간씩 되는 등 노출시간이 길기 때문에 잠잠이 잠을 잘 때도 있고 차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영화를 볼 때도 있습니다.

KASI : 풍경이 있는 천체사진을 찍는 노하우를 몇 가지만 공개해주시다면?

권오철 : 노하우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별 찍으려면 별을 잘 알아야 하고, 풍경도 곁들이려면 풍경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천체 사진은 노출시간이 길어서 잘 나올지 안 나올지 현상하기 전에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찍는 수밖에요. 제 경우만 해도 10년 가까이 촬영해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KASI : 낮은 곳에서 촬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실패담, 운 좋았던 일 등등 재미있는 이야기)

권오철 : 사실 낮은 곳에서 촬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찍다보면 더 이상 낮은 곳이 아니거든요. 해외나 나가야 낮은

곳이 나올 것 같습니다.

KASI : 이제 딥스카이는 거의 디지털입니다. 일주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권오철 : 이미 일주사진도 디지털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짧게 찍어서 이어붙이는 기술을 쓰면 오랜 노출에 의한 노이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서울 하늘에서도 별이 흐르는 하늘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쓰면 촬영시간 사이의 간격이 2~3초 정도 생기는데, 대형인화를 하면 별의 궤적이 끊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직 필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사진만 아니라면 필름보다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필름은 계속 단종되고 있어 제가 주로 쓰던 필름들은 이제 구할 수도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KASI : “꼭 이곳에서 별이 있는 풍경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곳이 있으시다면?(국내, 국외 모두)

권오철 : 이젠 말이 아니라 앞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KASI : 천체 사진 이외의 취미나 관심 분야가 있으신지?

권오철 : 관심분야는 많아도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 천체 사진만 해도 어렵습니다.

KASI : 천체 사진을 포함해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은? 꼭 하고 싶은 일은?

권오철 : 사진 작업을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제 경우는 한번 촬영에 이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날씨 맑은 토요일 밤이 아니면 촬영이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장 건지는 게 목표입니다. 작업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보니 수입을 줄이더라도 평일에 촬영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Shift-Down' 이라고들 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별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KASI : 앞으로도 좋은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